

주장사파라...

⑭ 해암 스님의 '석유 한사발'



조태호

해암 스님(1885~1985): 황해도 백천군 生. 11세에 수락산 흥국사로 출가. 성월·만공·해월 스님 등에게 가르침 받음. 덕숭총림 조대방장 역임.

선재동자는 현승우바이로부터 남쪽의 '비옥한 밭(沃田)'이라고 하는 성(城)에 있는 '견고한 해탈(堅固解脫)' 장자를 찾아가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뒤는 법을 물으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 성에 이르러서 장자에게 나아가 예배하고 나서 법을 설하여 주기를 청하자, 장자가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이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청정한 장엄(無著念清淨莊嚴)'이다. 나는 이 해탈을 얻고부터는 사방(十方)의 부처님 계신 데에서 바른 법을 부처님께 구하여 쉬지 아니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청정한 장엄해탈을 알 뿐이니 저 보살마하살들이 무리울 것 없음을 얻어 크게 사자후하며, 넓고 큰 복과 지혜의 무더기에 편안히 머무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알며, 그 공덕의 행을 말하겠는가."

견고해탈 장자의 법문은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매우 간략하다. 부처가 출생하는 법을 설하는 마야 부인에서부터 미래에 실제로 부처님이 되실 미륵보살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있는 열 사람의 선지식의 법문은 거의 모두 간략한 형태로 되어 있다. 그 까닭은 이 열 사람의 선지식들이 모두 부처를 출생시키는 법(法)만을 강조해서 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재동자는 이를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여야 할 법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수습(修習)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견고해탈 장자가 설하고 있는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청정한 장엄해탈'의 법문은 반야의 무상지혜(無相智)

견고해탈 장자의 법문

집착·망념 버려 견고한 해탈 성취

청정심 지니면 어디서든 정법 실현

慧로서 모든 법을 장엄하여 일체법(一切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집착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문은 일체의 법에 대해서 정념(正念)을 수렴함을 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견고해탈 장자는 정념이 확립되어 그릇된 관념이나 인식도 없고, 어떠한 마음의 혼탁함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장자가 얻고 있는 해탈이 일체의 소지장(所知障)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집착이 없다(無著)'고 하고, 번뇌장(煩惱障)을 떠나 있기 때문에 '청정(淸淨)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장자는 이렇게 해서 이미 견고한 해탈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 장자의 이름이 '견고해탈'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집착하는 생각이 없는 청정한 장엄해탈'의 법문이 그대로 '견고한 해탈'이 되는 것이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과 망념(妄念)을

버리지만 하면 곧바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이 장자의 법문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해탈을 얻고부터는 사방의 부처님 계신 데에서 정법(正法)을 부처님께 구하여 쉬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집착이 없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곧바로 아무 곳에서나 부처님의 정법을 부딪히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방세계의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정법을 부딪히 행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까닭은 무량무수한 집착과 망념 때문에이다.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일체의 세계에 대해 집착하여 거기에 사로잡히고, 온갖 허망한 생각에 스스로 도취되어 허우적거리느라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집착과 망상을 버리

기만 한다면 깨달음의 세계와 부처님의 세계가 즉시 펼쳐질 수가 있는 것이다. '사방의 부처님 계신 곳에서 정법을 부딪히 구하여 그만두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항상 정법에 수순하여 진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 또 다른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견고해탈 장자가 살고 있는 성의 이름이 '비옥한 밭(沃田)'인 것은 집착과 망상을 버림으로써 지혜와 덕을 갖출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법(善法)을 자라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집착과 망상이 없는 청정한 마음은 한없이 자유롭고 불가사의한 힘을 가진 마음이다. 어떠한 특정한 모습을 가지는 일도 없이 이런 저런 경계에 따라 여러가지 모습을 나타내면서 자연스럽게 순응해가는 마음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유마경에서 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정한 마음이 온갖 진실한 법을 낳는 도량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부처를 이룬다고 하는 의미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집착을 그치고 망념을 버리면 그대로 깨달음이 실현되고 부처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다. 화엄경 이세간품(世間品)에서 수행을 통하여 갖추게 되는 부처님의 특징적인 덕성을 열 가지의 부처(十佛)로써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로 '세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각을 이루는 부처(安住世間成正覺佛)'를 '집착함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견고해탈 장자의 법문과 서로 통하는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네터즌 교리문답

"공·무아·무심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

문 공(空)과 무아(無我)와 무심(無心)은 어떻게 같고, 혹은 어떻게 다른가? (ID '우매')

답1: 무아가 집착을 끊게 하려는 직접적인 수단이라면 공의 개념은 집착하는 마음까지도 진리 그 자체로 보는 것이다. 무이란 것도 유아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절대 무를 의미한다. 무심도 마찬가지다. 한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아(我)가 배제된 행위이다. 무아와 공과 무심은 유기적인 하나라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ID '우아')

답2: '공'은 아무 것도 없는 텅빈 상태를 말한다. '무아'는 '나'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무심'은 마음의 작용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사람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까닭이 진짜 행세하게 되니 무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ID '세등')

답3: 공-무아-무심을 체험하는 방법은 우주를 비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대의 마음속에 든 모든 상념을 비워버리면 된다. 우리가 늘 보아왔던 과일들은 보는 즉시 그 이름이 떠오른다. 이미 상념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생전에 처음 보는 것은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굳어진 상념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비워 보라. 스스로 알 것이다. (ID '법설')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38

불립문자(不立文字)-11

앞의 글에서, 세상의 통합성, 즉 불이 이치에 대한 내면의 체험은 언어로는 온전하게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아예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유마힐(維摩詰)이 무생법(無生法)에 대해 침묵으로 설법한 것이 유명한 한 예이다. 그 자리에 있던 청중 5천 명이 그 침묵의 설법을 듣고(무생법을 깨달았다고 한다. 석가모니의 경우에도 그 유명한 염화시중(焰華示衆)의 설법 이야기가 전해진다. 말 대신에 몸짓으로 설법한 셈이다. 그 설법을 가섭이 알아듣고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그런 이야기는 언어문자를 통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심지어는, 언어문자를 통하지 않아야 제대로 전달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언어문자는 전하려는 내면의 체험을 온전하게 담지 못하며 왜곡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말과 문자가 얼마나 여러 가지인가? 어떤 하나의 언어로 말한 것을 가지고 다른 언어로 옮길 때에 또 한번 대대적인 왜곡이 일어난다.

부처님은 원음(圓音) 즉 완벽한 소리로 설법을 하였기 때문에 청중이 잘못 알아듣는 일이 없었고 심지어 깨어나 벌 같은 미물들도 다 알아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언어의 한계를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의식이 거기에 깔려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는 결코 모든 중생에게 똑같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는 원화대사가 어느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원음으로 설법한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각각 이렇게도 이해하고 저렇게도

이해하여 서로 다른 주장이 난무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깨낸 이야기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양한 주장들의 취지와 의의, 시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작업이 바로 화쟁(和靜)이다. 후대의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온 매체는 경전이다. 불교 경전은 석가모니가 입적한 직후 제자들이 모여서 글로 적어서 만들었다고 한다. 석가모니 생시에 늘 바로 옆에서 수행하며 그 언행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아난(阿難)존자가 구술하는 것을 오백 명의 아라한이 받아 적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의 첫 구절인 여시아문(如是我聞), 즉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구절에서 '나'라는 이가 바로 아난이다. 하지만 문헌학에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불교의 경전이 다 그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 수백 년에 걸쳐서 각자 다른 때에 만들어졌다. 일단 만들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침묵가필 되었다. 심지어 가장 초기의 경전이라는 팔리어 경전 가운데에도 어떤 것은 서기 5세기에 와서야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경전의 문구 가운데 얼마만큼이 석가모니의 육성을 충실하게 담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경전을 불신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고 우리에게 전해진 경전은 불교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전하려는 그 사람들의 노고를 담고 있어서, 그 자체가 고스란히 불교라는 종교의 역사를 형성했다.

한단. 수백 년에 걸쳐서 각자 다른 때에 만들어졌다. 일단 만들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침묵가필 되었다. 심지어 가장 초기의 경전이라는 팔리어 경전 가운데에도 어떤 것은 서기 5세기에 와서야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언어 받아들여지는 차이 있어

침묵가필되며 종교역사 형성

의하면 불교의 경전이 다 그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정답은 26면에

상식퍼즐

가로

1. 불교의 연대 표시 방법
5. 도읍 물레에 들린 성곽 7. 고집멸도에 애발하고, 원종 회고, 구부득고, 오음성교의 4교를 더한 것
8. 마음이 곧 부처 9. 일삼는 경계로 삼는 말이나 글 11. 수리간과 의녀인 장미를 소재로 한 드라마 13. 불도를 깨닫고자 발원하는 말
14. 혼인에 관한 일 15. 위협이 타격을 당하게하도록 알리는 일 16. 주지 취임식의 다른 이름 19.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
21. 큰 스님이 법좌에서 깨침을 주기 위해 내리치는 것 23. 영화관 등에서 아침일찍 물건을 사면 할인해주는 것 24. 특정한 화문이나 일에 대하여 깊이 알고 있는 지식 26. 공전과 누각 27.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인 단체.

세로

1. 절을 세우고 불상을 모시는 등의 일 2.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기세가 대단함 3. 높은 스님을 모시고 설법하는 큰 법회 4. 중국 선종(禪宗) 승전(僧傳) 지은 책 5. 지자제에서 주가·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
- 조성하는 것 6. 부처가 10. 암소의 젖 13. 어떤 일을 처음하는 사람 17. 아주 짧게 부처지거나 깨어 내려 조카 18. 기업의 대표이사들 흔히 부르는 말 20. 기이로 이은 지붕 21. 사전. 또는 소설·연극·영화 따위의 중심인물 22. 사람이 올라타고 두 발로 페달을 밟아 바퀴를 돌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 23. 발인(發願)하기 앞서 영결(詠訣)을 고하는 제사 25. 음식을 만들어 파는 가게.